

‘광주 신가2中 설립 취소’ 교육청-주민 입장차 뚜렷

이귀순 광주시의원 주관 공청회에서
市교육청 “학령인구 감소” 거듭 강조
주민들 “의견 수렴 無...재검토” 촉구
재고 탄원서 시교육청에 전달 예정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구역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가2중학교(가칭)의 설립 취소를 두고 광주시교육청과 인근 주민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선 이귀순 광주시의원의 주최로 신가2중학교 신설 취소 관련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시교육청·광산구 관계자와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선 설립 취소 배경 설명과 조합·주민 의견 개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설립 취소의 배경으로 ‘학령 인구 급감’과 ‘주택재개발 사업 지연’을 꼽았다.

이선희 시교육청 초·중학교설립 사무관은 “개발 사업이 당초보다 수년 지연되면서 개교



(가칭)신가2중학교 신설 취소와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2일 오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성학 기자

시점이 2030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며 “그 무렵 예상 학생 수는 중학교 신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7학교군 내 중학생 수 역시 꾸준히 감소해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며 “학교 신설에 필요한 재정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설립 수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학생 배치 검토안’에 따르면 신가동이 포함된 제7학교군 중학생 수는 올해 7천968명에서 2030년 5천820명, 2032년 4천539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근거로 시교육청은 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수요를 인근 수완·운남·신가중학교에서 줄여든 여유 교실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과 주민들은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병석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대규모 단지에 중학교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서울 마곡, 인천 송도처럼 뒤늦게 과밀 학급 문제로 학교를 짓는 전례를 반복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장효석 모아엘가 입주자대표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을 통보한 것은 무책임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설립 취소는 시기상조”, “전면 취소가 아닌 개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으나, 시교육청이 재검토 등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이날 공청회가 마무리되면서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지역 주민들은 설립 취소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시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논의는 하겠지만, 설립 취소 방침이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며 “요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복합시설과 연계한 중학교라고 해도 학령 인구 감소가 너무나 명확하기에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檢, ‘60년 지기’에 흉기 휘두른 미화원 ‘징역 7년’ 구형

법원, 내달 29일 선고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맞았다는 이유로 60년 지기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이려 한 나주시청 환경미화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승현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7시30분께 나주 빛가람동 한 공원 앞에서 출근을 위해 차에서 내린 피해자 B(60대)씨의 목덜미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고, B씨는 행인의 신고 덕에 병원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이들은 나주시청 소속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사건 전날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A씨는 분개해 하며 B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건 당일 범행을 위해 B씨가 출근을 하는 곳에서 기다렸다.

이 같은 A씨의 행위에 대해 검찰은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

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곧바로 이어진 결심에서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간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이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왜 흉기를 들고 나갔는진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60년 지기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A씨에 대해 선고한다.

/안재영 기자

“GGM, 노조 간부 보직 해임 부당”

전남지노위 판정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작업장에서 의자를 치우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를 보직 해임한 것은 부당 행위라는 판정이 재차 나왔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

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판정서를 해당 노조 간부인 김진태 지회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GGM은 김 지회장이 의자를 치우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항의하자 명령 불복종과 명예 훼손, 휴대전화 소지 금지 정책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파트장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대해 지노위가 부당 인사라고 판정하자 사측은 해임 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지회장에게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줬다.

이 영향으로 김 지회장은 파트장 보직에서 다시 해임됐는데, 지노위는 이를 두고도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위반했다”며 부당함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광주지부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광주시를 규탄했다.

/주성학 기자

승용차, 경운기 추돌...80대 부부 숨져

보성경찰, 50대 女 운전자 입건

이른 오전 보성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경운기를 추돌해 발일을 가던 80대 부부가 숨졌다.

2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7분께 보성군 미력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50대·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경운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80대 부부가 열

어저 크게 다쳤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운기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A씨를 교통사고처리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성=임병연 기자

해외 도피 시도 중국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1억여원 편취...광주 북부경찰, 오늘 송치

지명 수배를 피해 해외 도피하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구속됐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40대)씨를 최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은 피해자로

부터 현금을 건넰 A씨는 구직 사이트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장기간 잠적한 A씨는 지난해 출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게 들롱나 검거됐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은 경찰은 3일 A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